

완벽히, 좋은 날

## \* 줄거리

많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대기업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는 강운. 강운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의 잔소리에 시달린다. 그 잔소리는 바로 “엄마 친구 딸 한번 만나봐라” 라는 잔소리인데, 강운은 소개팅을 통해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이 자신의 자존심을 괜히 건들이는 느낌이 들어 그 거부감으로 엄마의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며 자신의 할일을 계속해서 해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던 길에 강운은 집으로 걸어가는 길 자신의 시선을 끄는 헤미를 발견한다. 걸어가는 헤미를 따라 계속해서 시선이 이끌리지만, 이내 헤미는 강운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만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강운. 강운의 엄마 정인은 또 강운에게 사진 한 장을 가져와 강운에게 소개팅을 권유한다. 강운은 엄마를 내쫓듯이 하고, 엄마는 이내 “사진만 한번 봐 진짜 이쁘더라!! 헤미래 헤미 어쩜 이름도 이뻐 얼굴처럼” 라며 사진을 두고는 방을 나간다. 하지만, 강운의 머릿 속에는 퇴근길에 보았던 헤미의 얼굴만 가득하다. 그래서, 강운은 엄마의 그런 행동을 무시하고는 샤워를 하고 나와 화장대 위에 올려진 사진을 힐끔보니, 아까 자신이 퇴근길 보았던 그 여자 헤미이다. 결국 못 이기는 척하며 강운은 엄마에게 소개팅을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엄마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강운을 당황스럽게 했다. “너가 싫다고 해서, 이미 거절했어 이놈의 xx야! ……” 강운은 못이기는 척 소개팅 자리를 가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소개팅이 취소되자, 엄마 정인에게 일단은 쿨하게 “그래? 잘했네!” 라고 대답하지만, 온통 헤미의 생각으로 더 가득차버린다. 그날 퇴근길에도 혹시 헤미를 볼 수 있을까 주변을 돌아보며 퇴근을 하고, 그날도 어김 없이 헤미가 같은 장소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한다. 안절부절 못하다 이내 결심한듯 말을 걸어보려 헤미에게 향하지만, 그 때 헤미의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헤미는 전화를 받으며, 강운을 지나쳐간다. 그렇게 그날도, 말 걸기를 실패한 강운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운의 엄마 정인이 어떤 일인지 조용하다. 혹시나 헤미와의 소개팅에 대한 말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강운과는 달리 아무 말도 꺼내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괜히 실망을 하고는 방으로 돌아와 생각이 많은 듯 뒤척이는 강운.

소개팅과 헤미에 대한 생각으로 늦게 잠에 든 (뒤척인?) 강운은 늦게 일어나고 만다. 늦게 일어난 강운은 시간을 보고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아침부터 한바탕 난리를 치고, 안좋은 일은 꼭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버스도 놓쳐 결국 택시를 타고 겨우 출근을 한다. 그날따라 커피를 타다가 와이셔츠에 커피물이 튀고, 복사를 잘못하는 등. 일이 자꾸 꼬여 강운의 기분이 좋지 않다. 하루가 아침부터 너무 피곤했던 강운은 평소와 다르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친듯 맨날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춰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음악을 들으며 다시 걷는다. 그렇게 걷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툭툭 치고, 뒤를 돌아보니, “이거..” 라며 자신이 이어폰을 꺼내며 떨어뜨렸던 카드를 건네주는데, 그게 바로 헤미. 당황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가만히 있는 강운을 보며, 웃음으로 답을 하고, 이내 자신의 길을 가는 헤미. 강운은 잠시 멈춰서다가 엄마가 이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며, “헤미씨!”라고 불러버린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강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헤미. 둘은 눈이 마주친다.

\* 주요 등장인물

<p>지 강운( 34살)</p>	<p>취업이 어려운 요즘이지만, 아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직으로 골머리 썩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대학 졸업 후, 일찍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해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반듯하고 잘생긴 외모에 직장에서도 인기가 많고, 주변 친구들로부터도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지만, 거절한다. 여자를 만나기 싫거나 결혼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소개팅이나 여자를 찾아서 만난다는 것에 왠지모를 거부감을 느낀다. 그래서, 어서 결혼을 하라는 엄마의 압박에도 매번 듣는듯 마는듯 하는 태도를 보인다. 활발하고, 웃음이 많고 자기 할 일을 똑소리나게 잘하는 강운은 제 3자가 보기에는 그저 완벽하게만 보인다. 강운의 엄마 친구들에게도 “엄친아”라는 타이틀을 달고, 중매가 줄을 선다.</p>
<p>김 정인( 61살)</p>	<p>강운의 엄마. 꾸미기를 좋아하고 잘하며 굉장히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다. 꾸미기를 좋아하고 잘하여 61세의 나이지만 나이보다 훨씬 어려보이며, 자신의 아들인 강운의 흰철한 외모와 걸맞게 아름답고 우아한 외모의 소유자이다. 낮에는 거의 집에 있는 날이 없으며, 낮에는 주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쇼핑을 즐기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온다. 친구들이 자신의 아들인 강운을 칭찬하고 부러워할 때면 뿌듯함을 느끼지만, 얼굴도 직장도 집안도 어디 하나 빠져보이지 않는 자신의 아들이 연애도 하지않고 결혼을 하려는 생각이 없어보이는 것 같아 못내 불안하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 중매를 하겠다고 열심히 뛰는 인물이기도 하다.</p>
<p>인 헤미( 31살)</p>	<p>강운의 동네 사람이자, 강운 엄마의 친구 딸이다. 그리고 강운이 소개팅을 하게 되는 여인이기도 하다. 대단한 직장은 아니지만, 여느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해 자신의 위치해서 성실하게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물이다. 예쁘고 하얀 피부를 갖은 그녀는 얼굴로만,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훔칠만큼 청순한 외모를 갖고 있다.</p>

\* 기획의도

예기치 못한 순간이나 상황을 통해 혹은 타인을 통해서 나의 하루가 좋게 혹은 나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하루의 운이 나빠보인다고 그저 좌절할 것이 아니며, 내 하루의 운이 너무 좋아보인다고 방심하거나 거만해지지 않기를..!! 우리는 타인과 얽혀있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당장의 내일 어떤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보길 바란다.

Fade IN:

**S # 1 . INT. 강운의 집 (거실) - 저녁**

34살에 번듯한 외모를 자랑하는, 남들이 부러워만한 직장에 다니는 강운은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다.

강운은 집으로 들어와 신발을 대충 던지듯 벗으며 인사를 한다.

강운  
(약간 피곤한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강운의 엄마 정인은 방에서 나와 강운을 맞이한다.

정인  
(방에서 나오며) 어~ 왔니~?

정인은 강운에게 질문공세를 하며 강운의 뒤를 졸졸 따라 강운의 방으로 같이 들어간다.

정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오늘 회사는 어땠어? 뭐 잘되가는 여직원은 없고? (징징대는 어투로) 아들  
~~~대답 좀 해봐!!

강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으..

강운은 피곤한 표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귀를 틀어막는 행동을 한다.

**S # 2 . INT . 강운의 방 - 저녁**

정인은 여전히 강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강운에게 말을 건다.

정인  
(타이르는 어투로) 엄마 친구가 너 자기 딸이랑 중매 좀 하라고 난리야 뭐 얼굴은 평범한데, 어린 나이에 취직도 하고 제 자리 잘 찾아서 그럭저럭 잘 독립해서 살구 있나봐~ 그 정도면 됐지 안그래? 한번 만나보지 그래~ 너..도.....이..

강운은 말하고 있는 정인의 말을 끊고 옷을 벗으려다 정인을 내쫓고 방문을 걸어 잠근다.

**S # 3 . INT. 강운의 방 - 아침**

강운은 출근 준비를 하며 옷을 입고 있다. 피곤한지 강운은 눈은 반쯤 감고, 옷 매무새를 정리한다.

#### S # 4 . INT. 강운의 회사 - 낮

강운은 정신 없이 회사 업무를 보고 있다.

강운은 여러 거래처에서 오는 듯 들리는 전화를 붙들며 서류 이것 저것을 뒤진다.

강운의 회사 동료는 전화를 강운을 향해 입모양으로 다른 서류를 찾는 듯한 사인을 보내고, 강운은 이내 입모양으로 다른 회사 동료의 이름을 말하자, 동료는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내며 사라진다.

#### S # 5 . EXT. 강운의 집 근처 인도

여기저기를 둘러 보며, 길을 걷는 강운.

그 때, 강운을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는 여자 헤미.

조금은 창백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얀얼굴을 갖은 헤미는 검은색 생머리를 자랑하며 사뿐사뿐 강운 쪽을 향해 걸으며, 강운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 이내 지나가버린다.

자신이 꿈꾸던 이상형에 가까운 헤미.

강운의 눈에는 걸어오는 헤미의 뒤에서 후광 같은 것이 비치는 것 같다.

지나가는 헤미를 멍때리며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며 서있는 강운.

헤미가 사라지자, 얇은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길을 걷는 강운.

강운  
휴...

#### S # 6 . INT. 강운의 방 \_ 밤

강운을 따라 강운과 함께 강운의 방으로 들어오는 정인.

강운에게 사진 한장을 펼럭이며 조르는 정인.

정인

(조르는 말투로) 아니~ 뭐 엄마가 결혼하래? 엄마 친구 딸인데 집안도 괜찮고! 무엇보다 야, 얼굴이 너무 이뻐 엄마가 사진도 얻어 왔어! 한번만 보라니까? 응? 이름이 (또박또박하게) 헤.미.래! 인 헤 미 (대답을 강요하는 말투로) 이름도 이쁘지 않니~?엄마가 지금까지 본 여자애 중에 애가 제일 이쁘더라니까? 한번 보거나해봐! (화장대에 사진을 올려놓으며) 화장대에 사진 놓을까? (강운의 눈 앞으로 사진을 가져가서) 아님 지금볼래? 어?

관심 없다는 듯 옷을 벗는 강운의 머릿 속에는 아까 퇴근길에 보았던 헤미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강운은 엄마의 말은 들리지 않는듯 계속 한곳만 쳐다보며, 초점 잃은 눈동자로 멍 때린다.

#### S # 회상

강운을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는 헤미.

#### S # 6 . INT. 강운의 방 \_ 밤

여전히 초점 잃은 눈과 함께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강운.

정인은 빠진 듯 화장대에 사진(헤미사진)을 올려두고 방을 나간다.

(블랙?)

얼빠진 표정의 강운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화장실에서 나와 화장대로 향하는 강운.

로션을 바르다 사진(헤미사진)을 발견하는 강운.

놀라는 얼굴로 사진을 들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목에 걸치는 강운.

약간 망설이다가 방을 나가며 엄마를 부르는 강운.

강운  
엄마!!

### S # 7 . INT. 강운의 집 거실 - 저녁

거실에 앉아 티비를 보고 있는 정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강운.

강운  
(못이기는척한 말투로) 엄마! 알았어 알았다고! 할게 소개팅!

정인

.....

강운  
(대답 없는 엄마가 당황스러운듯) 엄마?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고!

정인

(통명스러운 어투로) 됐어! 너가 싫다매!! 아까 전화왔길래!!거절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아니? 하여튼 지만 잘났어 지만!!

강운  
(약간 당황했지만, 쿨한 척하며) 아 그래? 잘했네!

강운 약간 안절부절 못하며 '어찌지'란 표정으로 서성이다 이내 방으로 들어간다.

### S # 8 . EXT. 강운의 집 근처 인도 - 저녁

혹시나 헤미가 지나갈까 근처를 두리번 대면서 퇴근을 하고 있는 강운.

강운  
(약간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 시간쯤이었던 것 같은데...(시계를 한번 확인하며)

시계에서 강운이 눈을 떴어 고개를 드는 순간, 헤미가 자신을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고, 약간 당황  
하며, 머뭇거리다가 이내 헤미를 향해 걸어가는 강운.

하지만, 강운이 헤미의 근처에 다 다랐을 때쯤 헤미의 핸드폰에서 벨이 울린다.

(핸드폰 벨소리)

헤미

(걸어가며) 여보세요? 어 엄마~ 나 다와가요 금방갈게!

전화를 받는 헤미 앞에 강운은 멈칫하고, 헤미는 강운을 지나쳐 걸어간다.

### S # 9 . INT. 강운의 집 - 저녁

강운

(평소와 다르게 자신을 맞이하지 않는 엄마를 찾는듯 주위를 둘러보며)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며 엄마를 찾는 강운.

집 안은 조용하다.

주위 둘러보기를 멈추고,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강운.

### S # 10. INT. 강운의 방 \_ 저녁

침대에 누워있는 강운 생각이 많은듯 몸을 이리 저리 뒤척인다.

### S # 회상 \_헤미와의 마주침

등 뒤에 후광이 비치며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하얀피부와 긴생머리의 그녀 헤미의 모습이 보인다. 이어, 자신을 향해 걸어오다 이내 전화를 받으며, 자신을 지나쳐가는 헤미의 모습이 슬로우로 꿈 처럼 펼쳐진다.

(블랙?)

(알람음이 좀 길게 울린다.)

뒤척이며 일어나 시간을 확인한 강운은 깜짝 놀라며, 허겁지겁 수건을 챙겨 화장실로 들어간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와 머리도 말리지 못한채 옷을 허겁지겁 입는데, 바쁘게 옷을 입다보니 단추를 잘못 끼워 열었다 다시 채우는 등 바지를 입다가 넘어질 뻔 하는 등의 난리를 펼친다.

### S # 11. EXT. 버스정류장 근처 \_ 아침

버스를 향해 달려가는 강운.

버스가 지나가 버리고, 이내 절망한듯한 표정을 짓고, 택시를 잡으러 가는 강운.

강운

아..씨...

### S # 12. EXT. 강운의 회사 앞 - 아침

택시에서 내리다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아이스크림을 밟는 강운.

강운은 아이스크림을 밟은 한쪽 발을 들어올리고, 택시 기사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문을 닫는다.

강운

(아이스크림 밟은 발을 보며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아...(이내 택시로 고개를 돌리며) 수고  
하세요~

### S # 13. INT. 강운의 회사 - 낮

커피를 타고 있는 강운. 커피를 타다가 와이셔츠에 커피물이 튜다.

강운

(짜증내며) 아..

복사를 하다가 나오는 인쇄물을 뒤적이며, 무엇인가 잘못된듯 황급히 취소 버튼을 누르는 강운.

강운

(짜증섞인 말투로) 아 왜이러냐 진짜...

### S # 14 . EXT. 강운의 집 근처 인도 - 저녁

터덜터덜 자신의 발만 쳐다보며 걷는 강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핸드폰에 연결한 뒤, 음악을 들으며 다시 걸어가는  
강운. 이어폰을 꺼내며, 자신의 카드를 떨어뜨리지만, 강운은 모른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가는 강운.

헤미는 강운의 카드를 발견하고 집어 올린다.

헤미

(강운의 어깨를 톡톡 치며) 저기요.. (카드를 내밀며) 이거...떨어뜨리셨어요..

강운

(헤미의 얼굴을 보고 약간 흠칫하고, 이어폰을 빼며) 아..! (카드를 받으며) 네 감사합니다..!

헤미의 얼굴을 뵈히 바라보는 강운.

자신을 바라보는 강운을 보며 미소로 대신 답을 하고 가벼운 목인사를 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헤  
미.

카드와 헤미의 뒷모습을 빠르게 번갈아 보는 강운.

### S # 회상 - 엄마 정인이 헤미에 대한 이야기

정인

한번만 보라니까? 응? 이름이 (또박또박하게) 헤.미 래! 인 헤 미

(back to S # 13)

이내 결심한 듯 손에 쥐고 있던 이어폰을 주머니에 대충 쑤셔 넣으며, 헤미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는 강운.

강운

(약간은 다급한 목소리로) 헤.. 헤미씨!!!

걸음을 멈추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헤미.

그런 헤미를 바라보고, 헤미를 향해 더욱 빠르게 걸어가는 강운.

헤미의 앞에 멈춰 서고 둘은 눈이 마주친다.

(Title)